

성철 스님은 정말 현실에 침묵했나?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성철 스님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민주화 열기로 소용돌이치던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법어는 종교의 현실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승의 신비감과 대중적인 카리스마의 원천이기도 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가장 압축적으로 경험하던 시기에 살았던 성철 스님(1912-1993·사진).

이번에 나온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퇴옹성철의 깨달음과 수행>은 스님의 역사적 맥락에서 현실인식까지 소상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책이다.

조 교수는 이 책에서 "성철 스님은 탈역사적인 선승이 아니었다"고 강변한다. 스스로 산승(山僧)이기를 자처하며 현실사회와 정치에 침묵하여 철저히 은둔한 듯 보였지만 그의 삶은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국내 모기관이 '해방이후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철 스님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스님이 시기마다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해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만 역사에 무관심한 선승이라는 세인의 평가는 주로 당시 사회적 엘리트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스님의 대응방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한다는 것.

조 교수는 성철 스님의 사회참여 방식이 근대적이고 전통복고적인 개혁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즉 1947년 봉암사 결사에서 1981년 <선문정로>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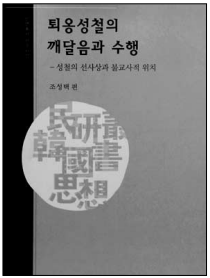
책의 구성은 1부 성철의 불교관과 돈오돈수론과 관련 '퇴옹성철의 불교해석학과 선불교윤리(박진영)' '성철 돈오돈수론의 불이법적 세계관(윤원철)' '성철 초기불교 이해(김종명)' '퇴옹의 간화선(김영욱)' '성철의 법맥론에 대한 검토(박해당)' 등의 논문이 소개된다.

2부 성철의 현실인식과 불교실천에서는 '간디와 성철(허우성)' '이성철의 불교개혁론(김광식)' '성철의 중도관과 실천방향(김경진)' '합리성과 엄격성으로 바라본 성철사상(이병욱)' '한국불교 현실에 대한 성철의 대응과 돈오돈수(김종인)' 등의 논문과 논평이 실려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돈오돈수론으로 본 세계관·역사인식
다각도로 분석



퇴옹성철의 깨달음과 수행
조성택 엮음 | 예문서원 | 2만3000원

150만 사경인 위한 개론서

현재 1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경인들을 위한 사경 개론서 <韓國의 寫經(한국의 사경)>이 발간됐다.

본래 사경은 불교경전을 옮겨쓰는 행위를 말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면 '사경을 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이라도 즉시 소멸되고 이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과 고뇌 그리고 아주 작은 악업까지 다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선지 우리나라에서 사경은 불교 전래와 더불어 1700여년의 장구한 세월을 이어왔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경은 경전유포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사경에 대해 그동안 종류와 형식 내용에 대해 분류하고 고찰한 서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경수행 30년의 한국사경연구회 외길 김경호 회장이 사경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범위, 체제, 양식 변천의 원인인 각 부분의 상징성에 대해 명확히 규명한 개론서의 발간은 의미가 크다. 김 회장은 35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사경수행을 하며 전통사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체



한국 사경
김경호 지음
한국사경연구회
2만원

재와 양식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사경의 역사와 통일신라의 사경신앙에 대해 조망하면서 신라말 금자 대장경을 사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더욱 발전하여 중국을 월등히 능가하는 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회장은 "우리 조상들이 세계최초로 인쇄술을 개발하게 된 연원엔 사경에 있다"며 "이렇게 이루어진 전통사경은 세계속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이자 민족정신의 위대한 승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세계 책의 날' 행사 다채

4월 23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 7회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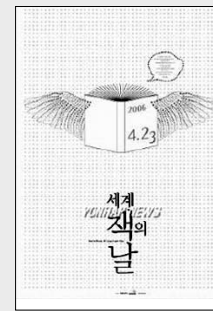
부산 영랑도서관 등 전국 18개 중대형 서점들은 24일 서점을 찾는 사람들에게 책 한 권과 장미 한 송이씩을 무료로 나눠준다. 참여 서점은 교보문고(광화문점 대구점 인천점) 영풍문고(서울 종로점) 서울문고(서울 강남점) 씨티문고(강남점) 서현문고(분당) 동보서적 남포문고(이성 부산, 리브로(수원) 북하우스(파주), 태영문고(고양) 계몽문고(대전), 흥지서림(전북 전주, 학문당(마산), 삼복서점(광주), 북하우스(진주)이다.

출판도시문화재단과 아톰더문고계는 파주출판단지 한책방 보물섬 일원에서 '책 베품시장-책장의 애물단지들 보물단지로!' 행사를 연다. '책 베품시

장' 한책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031)955-007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책 읽는 사람들과 책이 있는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 백수향 씨의 사진전을 인사동 갤러리 북스(BOOK'S)에서 12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한편 (사)한국출판인회의는 '세계 책의 날' 기념 포스터(사진)를 제작, 12일부터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 주요 서점,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중이다. (02) 3142-2333



이름 지을 수 없는 삶
탄탄 스님 지음
윤주사
1만원

이 법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모아 산문집을 펴냈다. '이름 지을 수 없는 삶'은 산문집이라고 하지만 설명집이나 법어집에 가깝다.

책에는 포교현장에서 열정적이고 결집없으면서도 수행자의 엄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스님의 삶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스님은 "수행이란 산속이나 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고요한 곳에서 가라앉힌 마음은 다시 세간으로 되돌아와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한다. 참된 수행은 생활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스님의 이야기는 포교일선에서 부대끼며 원력을 실현해가는 젊은 수행자의 풋풋함과 투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점이 있다.

스님은 말한다. "사랑에 매이지 않고 미워하되 미움에 묶이지 않으면 내 마음과 삶이 어디에 묶여서 부자유스럽고 불안하겠으며, 애증의 틀금이가 잠잠해지면 파도는 어디에 있겠느냐"고.

책의 내용은 1장 '불자로 산다는 것' 편에서는 '자비무적' '화혼한 부부에게' 등 신행이나 불자로서의 삶에 관련된 산문 형식의 글들이 실려있다. 2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믿음의 기쁨으로'는 '불교의 효도관' '삼법인' 등 교리적인 내용들을 현실성을 담아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 탓이다 시공사, 지수 스님, 9500원
-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열림원, 정찬주, 9800원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00가지 민족사, 석성우외, 6000원
- 산사에서 만든 차 정리출판사, 이정애, 3만3000원
- 생활속의 예술문 효림, 김현준, 6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부다가야가 드리는 "가슴에 새겨지는 깊고 그윽한 향기" ①

남 잘되게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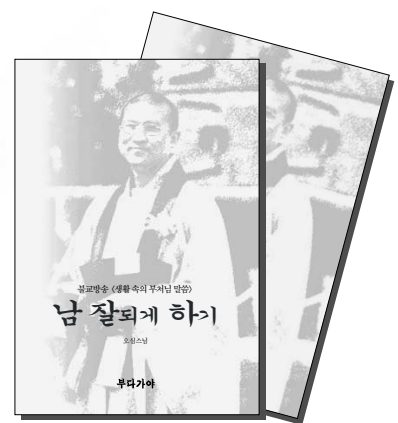
오심스님의 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 모음집

"마음은 마음을 알지 못하니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상이 일어나면 지혜요,
마음에 상이 없으면 곧 열반이다.
공을 알고 보면
모든 것에 하찮은 상념이 없는 것이다.
거울을 삼기름으로 닦으면
저절로 영상이 보인다.
그 영상이 거울 속에서 나오느냐? 아니다.
그것이 밖에서부터 거울 속으로 나오느냐? 아니다.
기름으로 닦게 닦으므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망상이 있기 때문이니
그 마음이 치심이다.
망상이 없으면 곧 열반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오직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남 잘되게 하기 (오심스님 지음, 신국판, 29,000원)

부산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의 생활법문을 모아, 메달라가는 현실에 한 가득 실날같은 희망과 울바른 생활을 향한 지혜를 안겨준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 즉 이타행(利他行)을 향한 진리의 메시지를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홈페이지: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대한기획 (051)866-7818

